

현대 아방가르드의 패러다임에 따른 NOW 아방가르드 패션 고찰 - 2005년 이후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

이 미 연[†]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NOW Avant Garde Fashion according to Modern Avant Garde Paradigm - Focus on Women's Wear since 2005 -

Miyoe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08. 8. 27. 접수일 : 2009. 1. 19. 수정완료일 : 2009. 2. 26. 게재확정일)

Abstract

Many studies make us difficult for understanding the specific concept of NOW avant garde by misusing avant garde or by using the over wide-ranging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NOW avant garde fashion by analyzing its fashion and its paradigm characteristics, after considering modern avant garde fashion history.

This study was used with bibliographic research as well as internet search of qualitative method for analyzing fashion show clothes since 2005 women's wear.

The characteristics of NOW avant garde fashion are classified into plural deconstructivism, economism that integrates the last avant garde factors with logical economics, and the aesthetic of Tech-Human.

To conclude, the concept of NOW avant garde fashion is defined as the fashion expressing either the digital-hybrid images or the deconstructive images meaning elimination, unification or confinement, being piled up one on another, bizarre connection, transposition, and distortion.

Key words: *avant garde*(아방가르드), *digital fashion*(디지털 패션), *paradigm*(패러다임).

I. 서 론

패션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아방가르드의 개념 역시 변화하며, 아방가르드 패션은 역사와 예술, 사회, 문화적 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 하나의 실천적 결과물로서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정의

또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패션의 역사가 1세기를 넘어서면서 패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항상 아방가르드라는 새로운 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 시대의 주도적 매커니즘이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용에 의한 의미 상실의 이루어지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아

[†] 교신저자 E-mail : myblue204@naver.com

방가르드 개념과 특성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아방가르드는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질주 속에서 존재되며, 새로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요소들로 변형되거나 창조되어 새로운 의미의 아방가르드는 지속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확정성과 열림의 미학으로, 전통의 거부와 재사용, 그리고 실험적이고 비논리, 비이성, 무형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 양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사회의 요구와 시대정신의 변화를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디자인을 풀어나갈 열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방가르드를 존재케 한다. 특히 패션에 있어서는 신구의 패러다임의 연결고리로 사용되어 수많은 표현기법과 스타일들이 난무하게 만들며, 기존의 아방가르드 패션을 최신 트렌드로 유행시켜 아방가르드적인 패션으로 변모시키고 또 다른 형태의 아방가르드를 잉태한다. 따라서 앞선 아방가르드를 초월하는 아방가르드 패션은 항상 시대와 이전의 아방가르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아방가르드가 현재의 아방가르드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아방가르드와 아방가르드적인 패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더니즘 시대의 아방가르드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아방가르드의 특징에 상관없이 아방가르드 개념을 혼용하거나 너무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아방가르드의 패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현재적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인공과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현재 NOW-아방가르드 패션을 고찰하기 위해 www.style.com의 Ready-to-Wear에서 추출한 2005년 이후의 컬렉션 상품을 바탕으로, 현대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과 사회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아방가르드의 변화를 분석하여, 각 변화에 따른 아방가르드 패션과 개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중핵적인 부분인 아방가르드 패션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패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며, 때로는 즉각 수용되어 그 시대의 미적 가치의 척도가 되는 가 하면, 때로는 거절되었던 스타일이 다음 시대의 새로운 발판으로서 기틀¹⁾이 되는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의 미적 관습과 앞으로 전개될 미적 실천과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아방가르드 패션은 미래 복식의 얼굴을 예시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II. 역사적 흐름에 따른 아방가르드의 예술과 패션

1. 초기 아방가르드 용어와 아방가르드 패션의 발생

1) 초기 아방가르드 용어 발생

아방가르드는 원래 군사적 용어로서 그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정치, 종교, 문학과 예술 등에서 자기 의식적으로 앞선 위치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아방가르드 은유는 19세기 이전에는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았다²⁾. 아방가르드가 본래의 군사적 의미를 잃고 심차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급진주의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경으로, 생시몽(Claude Henri de Saint-Simon)³⁾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과 사회개혁자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보다 넓은 의미의 근대적인 정치 사상과 미학 양자 모두에 있어서의 급진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예술적 급진주의나 실험적 정신을 연상시키지는 못했다⁴⁾. 그러나 프러시아 전쟁과 코뮌(Commune: 역사상 최초의 프랑스 노동자 권력)의 대두 이후 즉 1870년 이후의 몇 년간을 통해 아방가르드가 잠시 예술적인

1) 엄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권 (1998), p. 71.

2)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7-8.

3) 생시몽(Claude Henri de Saint-Simon: 1675 ~ 1755)은 프랑스의 이상주의자로서 “문학의 이해(Opinions Littéraires)”에서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과학자에 대한 예술가의 아방가르드적 임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엄소희, “현대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11.

4) 하영복, “현대의상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17권 (2000), p. 185.

의미로 변화되는 듯 하였으나 아방가르드가 정치적이라는 제 1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예술가 개인의 형식적 실험의 탐구라는 독립된 예술적 개념으로의 등장⁵⁾은 1885년경부터 시작된 벨 에포크시대부터이다. 이때부터 아방가르드는 사회형태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 정신을 예술 형태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조그마한 선진적인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집단을 지시⁶⁾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수많은 주의와 유파와 그룹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아방가르드의 의미는 군사적, 탈 중세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19세기에 주로 정치적 좌파와 이 좌파의 무정부주의자들을 특징 지우는 의미로써 작용⁷⁾하게 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급진적인 비판 정신의 소수 예술가를 지칭하게 된다.

2) 초기 아방가르드 패션의 발생

초기 아방가르드 패션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정치적 아방가르드들에 의해서 가난한 복식을 수용함으로 출발하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생긴 팬탈롱(pantaloon)은 귀족의 몰락과 민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⁸⁾. 그러나 젊은 정치적 아방가르드들인 앙그르와야블(incroyable)은 댄디의 복장을 귀족풍의 기묘한 옷차림으로 변형⁹⁾시켜 극도의 치장으로 기묘한 댄디를 선보였으며, ‘기묘한 옷차림의 멋쟁이’라는 뜻의 여성 아방가르드들인 메르베이웨즈(merveilleuse)는 살색 마이요(mailot: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 수영복 스타일) 위에 투명한 머슬린 드레스의 도발적인 치장을 했다¹⁰⁾.

이후 산업혁명은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부르조아를 대두시켰으며, 자본주의 모더니티의 속물적 위선에 대한 반감은 인간 본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시도

로 나타났다. 복식에 있어서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크라놀린 스타일의 부르조아 복식에 대한 반항으로, 댄디와 보헤미안의 패션 그리고 라파엘로 전파 복식과 유태주의의 복식이라는 아방가르드 패션을 등장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댄디의 외모는 구제도의 남성적인 미학과는 뚜렷한 단절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은 꾸미지 않은 냉정한 남성미를 통해 합리적 이성주의의 진보의 신화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었으며, 반-귀족을 성취한 보헤미안들은 너털너털하고 볼품없는 옷으로 단정치 못한 면과 자의식이 강한 면을 표출하고자 하였다¹¹⁾. 1850년대의 라파엘로 전파주의 복식은 라파엘로 전파주의자들의 예술 이념에 따라 직접 제작하여, 그들의 작품에 직접 그려지고 그들과 연계된 여성들에 의해 실생활에 입혀졌던 중세풍의 단순한 의상을 말하며¹²⁾, 유태주의의 복식은 영국에서의 반항적인 보헤미안 여성 복식으로 중세나 그리스 복식의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했다.

이상의 초기 아방가르드 패션은 정치적 반항에서 출발하여 부르조아들에 대한 반목으로 표출된 패션의 혁신적 결과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철학을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당시로서의 비합리적인 복식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2.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과 패션

1)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

초기 아방가르드의 급진적인 비판 정신은 20세기 초에 예술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규범적 과거에 대한 부정의 정신으로 등장한다. 즉, 고전적 예술의 한계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정서를 중시하고 동적인 리듬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여 이성적 사유의 한계

5) 박미정, “아방가르드 특성을 도입한 현대무용 의상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9.

6)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16.

7) 정원일, “아방가르드 담론에 관한 연구-포스트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들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9집 (1997), p. 270.

8)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Avon Books, 1980), p. 385, 재인용, 노경심, *Op. cit.*, p. 32.

9) 노경심, *Op. cit.*, p. 34.

10)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권 3호 (1984), p. 22.

11) 노경심, *Op. cit.*, pp. 35-37.

12) 이주연, “라파엘로 전파 회화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1.

13) 하영복, *Op. cit.*, p. 187.

로 인해서 제약되고 감추어졌던 비합리, 비논리, 비이성의 영역을 열어보고자 한 최초의 혁신적인 정신¹³⁾인 낭만주의의 등장에 힘입어, 19세기를 경과하면서 모든 역사적인 유산 즉 전통을 단절시켜 버리는 매우 급진적인 모더니티 의식¹⁴⁾인 것이다.

아방가르드가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을 전면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칼린네스쿠(Calinescu)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더니티 즉, 부르조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았다¹⁵⁾. 즉, 이 시기의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두 모더니티의 대립 속에서 부르조아의 속물적 모더니티를 부정하고 미적 모더니티의 세승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미적 모더니티는 19세기 중반 처음 나타난 미학적 현대성¹⁶⁾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초의 모더니즘으로 발전된다. 모더니즘 예술의 역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예술의 창조를 불러내는 소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역사는 아방가르드의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함께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탄생 배경이 19세기 중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합리화 과정에서 형성된 부르조아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점¹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예술 사조를 새로운 실험의 정경을 띠게 만드는 예술 사조의 기저로, 모더니즘의 직선적인 창조적 진보 즉 큐비즘, 이탈리아 미래파, 독일 표현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등의 동시대발적 예술로서 '역사적 아방가르드'로 명명¹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에는 사회와 예술의 통합을 통해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서 이데올로기 하려는 경향과, 순수한 형식주의와 표현적 자유를 주장하며 예술적 실험만을 하는 경향이 공존¹⁹⁾하는 정

치적·미적 기능을 함께 수행한 급진적인 부성의 예술 경향을 띤 모더니즘의 실험의 역사라 할 수 있겠다.

2)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은 모더니즘적 측면과 미학적 예술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더니즘 패션 주제도 그 당시 새로운 실험의 성격을 띤 아방가르드였기 때문이다²⁰⁾. 미학적 예술측면에서의 아방가르드 패션은 스키타파렐리(Elsa Schiaparelli)와 비오네(Madcleine Vionnet)에 의해 1930년대에 처음으로 발표된다. 스키타파렐리는 동시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친분을 가지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자주 이용한 트롬퐁퐁외유(Tropme l'oeil) 기법, 위치 전환에 의한 데페이즈망(Depaysement) 기법들을 통해 복식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들을 거부하고, 예술과 정신세계를 합축한 혁신적인 개념을 복식에 부여했으며, 비오네는 마이어스 키팅과 독특한 입체 재단 수법은 이용해 스웨티와 같은 신축성을 갖게 하고,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드레스의 움직임이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부브 드레스를 발표하는 등 입체 재단에 의한 혁신적인 재단 방법의 개발로 피드성과 운동성, 장식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²¹⁾.

모더니즘적 측면에서의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은 뿌아레(Poiret), 샤넬(Chanel), 디오르(Dior),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에 의해서 전개되었는데, 특히 뿌아레는 1904년에 여성의 인체를 구속해 왔던 코르셋을 폐기하고, 독창적인 상상력과 감성으로 의상의 모더니티를 표현하였으며,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 호블 스타일, 미나렛 스타일과 같은 아방가르드 패션을 발표하였다. 샤넬은 1920년대 여성 패션에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보이쉬(Boyish) 스타일과 허리의 곡선을 감추고 허리선을 아예 엉덩이로 내리고 램라인을 무릎까지 올린 좁고 긴 라인과 짧은 스커

14) 정원일, *Op. cit.*, p. 267.

15) 하영복, *Op. cit.*, p. 187.

16) 김만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 복식 37권 (1998), p. 105.

17) 정원일, *Op. cit.*, p. 267.

18) 엄소희, *Op. cit.*, p. 15.

19) *Ibid.*, pp. 15-16.

20) 김만자, *Op. cit.*, p. 105.

21) 이봉덕, *Op. cit.*, pp. 18-19.

트 형태의 가르송느(Garçonne)룩으로 아방가르드 패션을 주도하였다. 또한, 주변 문화 이미지가 가미된 아방가르드는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뉴욕의 할렘과 흑인문화로부터 나온 재즈의 열풍에 의한 아프리카 풍의 장식과 디자인의 등장과, 1920년대 파리 예술계의 흑인 예술에 대한 관심과 흑인 댄서의 등장으로 인한 흑색의 미, 그리고 1931년 파리 식민지 박람회 이후 토속적인 원색의 유행²²⁾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혁명적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나타난 남성적이고 실용적인 밀리터리룩은 다시 반항의 대상이 되어, 1947년 디오르에 의해 남성적인 실루엣에 대한 반항적 복식인 “뉴룩(New Look)”과 직선적 경향인 A~Y 라인의 아방가르드 패션이 빠르게 전개된다.

따라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은 예술의 직접적 접목에 따른 추상적인 형(形)의 복식과, 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혁명적 사건 그리고 복식 자체의 전통에 대한 반발과 새로움의 추구라는 미적 모더니티로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순수 복식, 그리고 고전적인 인체의 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라인의 발견으로 탄생된 순수조형의 아방가르드 복식을 의미한다.

3. 네오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과 패션

1) 네오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네오다다이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아방가르드 예술은 1960, 70년대에 이르러 예술이 현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대중문화의 대응물로서 역할²³⁾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예술의 시도는 네오 아방가르드로 이어져 과거와의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닌 즉 고급과 저급,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이분법적 단절이 아닌 회

복과 수용의 개념으로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이론²⁴⁾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즉, 네오 아방가르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발점 단계에 나타난 아방가르드로서, 포스트모더니즘²⁵⁾ 시각에서 전체적 성격과 위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나타났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제도권 예술로 흡수된 아방가르드 운동의 계승이며 논리적 발전에 힘입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초기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네오 아방가르드성격은 ‘반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이며,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정신과 수법에 의존하지만 다른 기호로 전환된 그리고 그 당시로서의 현재 즉 1960년대 이후의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반 모더니즘’이란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시도했던 저항과 충격이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즉 제도예술로 되어 버린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예술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며, 네오 아방가르드의 네오의 의미는 이전의 아방가르드의 전락과 이상을 재 포착하고 고도화시키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네오 아방가르드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지만,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사용했던 수법들을 패러디하여, 예술 속에 대중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아방가르드 자신들 스스로가 변혁을 모색한 것이었다.

사적으로 볼 때 고급예술에서 대중이미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다다 운동의 레디메이드(Ready-Made)²⁷⁾ 오브제였으며,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제기한 1960년대의 팝 아트(Pop Art)와 누보리얼리즘(Nouveau Realism), 액션 페인팅, 인포르말(Informal)로 불리는 행위예술, 플럭서스(fluxus)와 같은 사회주의적 공연예술, 그리고 움직임 자체를 작품의 본질로 설정한 키네틱 아트(kinetic art)와 옵아트(op

22) 조규화,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4호 (1991), pp. 383-384.

23) 장미숙, 양숙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3호 (1999), p. 76.

24) *Ibid.*, p. 413.

25)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의 의미는 첫째 “초월한다”는 의미이며, “모던보다 더 모던하게”된다는 뜻으로 새 것에 대한 충격이며, 둘째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반 모더니즘”을 암시하는 정 반대의 의미거나 “새로운 위앙을 지닌 모더니즘의 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셋째, 어떤 역사적인 가상의 시대적인 것으로, 또는 진보 물리학의 초우주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 포스트 현재-를 암시하는 환각적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약간은 모던적이고 약간은 뭔가 다른 것이 혼합된 것이 가능성, 혹은 모더니즘의 비평적이고 선택적인 연속과 그것의 초월을 암시한다.-김민자, *Op. cit.*, p. 113.

26)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개정증보판 (서울: 현암사, 2004), p. 191.

27) 김남미, *현대미술의 동향: 재현에서 제서로-레디 메이드와 롬바인 회화*, (서울: 미진사, 1987), p. 228.

art)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더니즘과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란을 통한 신사실주의에 임가해 나타났다. 특히 팝아트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비평적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예술이 보여준 고답적인 태도에 대한 전복적·반어적인 목적으로 키치적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네오 아방가르드에 있어서의 키치의 특성은 기존의 예술을 전도시킨다는 점과 미적으로 미 완성적이고 싸구려 내지는 쓰레기 같은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차용된 이미지를 예술 소재로 등장시켜, 반전통적, 실험적, 혁신적 소격 효과를 표현하여 다시금 기존 아카데미즘(academism)의 경화 현상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네오 아방가르드 예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단계의 이정표로서, 반 예술적 충동을 아이러니한 방법 즉, 대중적 소재를 키치의 표현방법을 빌려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간극을 없애고 반문화와 문화산업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반정치적·반 모더니즘적·실험적·반어적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다.

2) 네오 아방가르드 패션

네오 아방가르드 예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실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대중문화의 대응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맞추어, 패션에 있어서의 아방가르드는 5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청소년 흑인문화와 하위문화집단 그리고 대중예술 팝아트를 표현의 주제로 선택함에 의해 형성되었다.

흑인문화의 수용은 스킨헤드와 70년대의 펑크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패션의 수용은 1960년대 후반 히피 반문화에서 시작되어 펑크에 의해 가지화된다. 히피들은 시민적 반권위주의, 페락주의, 그리고 부에 대한 경멸을 표현²⁸⁾하기 위해 낡고 추레한 차림새의 중고 스타일을 선택하였고, 평화 추구를 향한 반전 사상을 표출하기 위해 민속적인 플로로어 스타일을 선택하여 레이어드 패션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기존 문화와 가치관에 반발하

는 히피들은 다양성과 반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청바지에서부터 에스닉, 노스텔지어, 사이키델릭, 미니와 힙스터 등 모든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착용하였다²⁹⁾. 1970년대 런던을 중심으로 출현한 펑크는 기존의 미의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외모로 표출하고자 계급과 성과 인종에 관련된 외모를 결정짓는 단서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전통적인 하이패션이 추구하는 관습적인 미를 자기반어적인 방법으로 거부함으로써³⁰⁾, 반 패션으로서의 스트리트 패션을 표방하였다. 또한, 히피와 펑크는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낡은 키치를 이용한 허부주의적 미의식을 표출하였으며, 남녀의 성 관념에 대한 도전을 형성시키게 된다. 1940년대 런던의 젊은 노동계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페티시즘(Fetishism)을 성취한 덴디 집단인 테디보이(Teddy Boys)를 이은 모즈(Mods)는 동성연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남성은 페티시즘을 통해 여성다운 스타일로, 여성은 유니섹스 룩을 통해 남성다운 스타일로 표현하는 성의 혼돈을 초래했다³¹⁾. 또한, 60년대 미니는 모즈걸(Mod-Girl)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메리 쿼트(Mary Quant)와 조안 워트(Joan Huir)의 첫 컬렉션에 선보인 아래로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èges)가 세계 패션에 미니스커트를 정착시키게 된다. 네오 아방가르드 예술의 한 장르인 팝아트의 영향은 패션에 있어서 팝 패션과 몬드리안 룩을 필두로, 옵아트, 키네틱 패션, 사이키델릭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특히 파코라반의 작품은 종래의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관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충격적인 미를 전달하기 위해 복합재료를 사용한 키치의 유형으로, 과잉장식, 부적합성, 모조품의 활용 등으로 세련된 미에 익숙해 있는 기성인들에게는 기대치 못하였던 문화충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으로 인한 우주과학의 시대로 향한 1960년대에는 푸레주의 스페이스 에이지패션(Space Age Fashion)과 가

28) 노정심, *Op. cit.*, p. 46.

29) 정삼호, "1960~1995년의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6권 1호 (1997), pp. 46-47.

30) 하영복, *Op. cit.*, p. 193.

31) Peter Ackroyd, *Dressing Up*,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79), pp. 120-122. 제인용,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1987), p. 75.

르탱(Pierre Cardin)의 코스모폴 룩(Cosmoscorps Look)이라는 미래주의적 아방가르드 패션이 미래적 요소가 담긴 라인과 형광컬러, 광택소재, 핫팬츠 그리고 단순한 원피스 스타일로 표현되어 실험적이며 아방가르드한 의상으로 발표되었다.

이상의 네오 아방가르드 패션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 이념적, 예술적, 대중적 현상과 요소들을 아방가르드의 표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며, 미래주의, 대중주의, 연속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속에서 소집단의 비주류집단과 하위문화요소 그리고 예술의 영역을 패션에 접목하여, 키치와 성의 혼돈을 만연케 한 히피와 펑크라는 스트리트 아방가르드 패션과, 사회·예술적 현상에 대한 아방가르드들의 흡입력으로 나타난 미래주의 패션과 팝 패션들로 나타났다.

4. 트랜스 아방가르드 예술과 패션

1) 트랜스 아방가르드 예술

초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 그 이전 10년간의 기준이 되었던 가정들이 사라져 버렸거나 변형³²⁾됨으로써, 이탈리아 회화를 중심으로 등장한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전반기의 바깥인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전환을 시도하며 과거의 표현주의나 구상적 회화의 이미지처럼 인간의 원초적 요구를 격렬하게 그려낸 경향이라 할 수 있다³³⁾. 트랜스 아방가르드 예술은 네오모던의 형식주의에 가깝기보다는 과거 복귀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이전의 네오 아방가르드의 액션 페인팅, 네오나다, 팝아트, 신사실주의를 완전히 결합시킨 일종의 결합 예술 내지는 절충예술³⁴⁾이라 할 수 있다. 트랜스 아방가르드 예술은 1979년 독일에서 열린 ‘유럽 79’전과 1980년에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의 청년작가들과 거리의 낙서화가들이 연합하여 개최한 ‘타임즈 스퀘어쇼’를 필두

로³⁵⁾ 하여, 독일의 신표현주의, 80년대 미국의 뉴 페인팅(New Painting)이나 뉴 웨이브(New Wave), 프랑스의 자유구상 등으로³⁶⁾ 진보의 전통을 부인하며 모방과 절충을 위주로 한 과거 지향적인 매너리즘을 확산시키게 된다.

따라서 트랜스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대중문화에 예술중심의 네오 아방가르드에서 다음의 아방가르드 넘어가는 연결의 아방가르드로서, 모더니즘의 완전한 단절과, 전통에 대한 회복의 예술 그리고 아방가르드 기술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절충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2)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네오 아방가르드들에 의한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간극의 소멸에 의한 새로운 아방가르드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성과 기능성 위주의 테일러드 복식에 영(young) 세대의 전위적인 패션의 요소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맛을 가미시킨 룩인 뉴웨이브와, 펑크와 팝 패션의 하이패션에 도입에 따른 새로운 미의 창조, 역사주의 복식의 현대적 절충, 그리고 동양풍과 민속복에 나타난 이국적 새로움으로 아방가르드 패션에 나타난다.

80년대 성의 양분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행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적 재킷과 여성적인 미니스커트를 대비시킴으로 엉뚱한 대비효과로 강한 이미지를 전위적으로 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아방가르드인 언더웨어 룩과 바디 컨셔스 라인은 여성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노출을 극대화하여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³⁷⁾. 또한, 이전의 펑크는 기성세대로 하여금 분노와 충격을 느끼게 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힙합이라는 형태로도 등장하는데, 힙합패션은 다민족 스타일로, 윌링하고 편

32) 김현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책대는문집(인문·사회)* 37권 (1993), p. 94.

33) 배주리,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랜스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1.

34) 정정식, “1980년대 포스트모던 회화에 있어 신표현주의 경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5.

35) 강내희,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 (서울: 월간미술, 1994. 3), p. 137.

36) 배주리, *Op. cit.*, p. 8.

37)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61.

안한 스포티브 스타일로, 컬러풀하며 자유로운 그라피티풍으로 표현되어 거리의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등장한다³⁸⁾. 그리고 하이패션에 도입된 핑크 감각은 단정치 못한 복잡·미묘한 속에서 새로운 미와 매력을 창조하려는 의지로서 나타났다³⁹⁾. 1980년대에 나타난 팝 패션은 플라쥬, 낙서기법(Graffiti), 키치, 레터링 등의 기법으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장 폴 고티에(J. P. Gaultier)는 70년대 시작된 콤파트를 앗셈블라쥬(Assemblage)한 믹스드 스타일(mixed style)⁴⁰⁾을 발표하였다.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럽 전통패션으로의 회귀로, 1980년대 전반의 전위적인 거리패션과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적 경향이었다⁴¹⁾. 이러한 역사주의적 성향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요 표현방법은 주로 크리놀린(crinoline)이나 버슬(bustle) 스타일을 도입하여 통속적이며 에로티시즘(Eroticism)을 표현하거나, 역사주의적 패션의 일부를 장식적인 요소로 절충하여 모더니즘에서 무시되었던 장식적인 요소를 다시 도입하여 낭만적인 분위기의 극단적인 장식 효과로 충격 효과를 추구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코로지움과 드래이프 형태와 시각적 감각을 강조한 오리엔탈 룩 그리고 때 묻지 않는 원시성과 이국적 이미지의 에스닉 패션이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은 네오 아방가르드가 실현했던 스타일들을 발전 변형시키고 역사적인 것과 변두리의 것을 절충하여 과격적인 새로움을 추구했다. 그 미적 특성은 모더니즘적 패션에서 완전히 탈피를 의미하고, 전통에 대한 회복의 예술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주의, 역사적 절충주의를 표현한 회귀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패션의 구현이라 할 수 있겠다.

5. 포스트 아방가르드 미학과 패션

1) 포스트 아방가르드

포스트 아방가르드는 '포스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이상을 맞이한 새로운 아방가르드를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압축발전적인 문화를 향한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진화되며, 오래 되고 낡은 역사적 파편들, 그 동안에 비주류 문화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술제도와 사회제도 하에 지시되었던 성성, 민족성, 통속성, 퇴폐성 등과 같은 반미학적 요소들을 다원주의와 해체주의, 기술주의, 역사주의, 절충주의 그리고 그동안 아방가르드의 모든 혁신적 예술 형식에 남아있는 형식주의에 대한 음산한 패러디 혹은 혼성모방으로 상품 생산 체제 속에 용해함으로써, 인간의식 밖에 있는 객관적 실재를 부정하고 현실을 주관적 관념의 구성물로 환원하거나 해체해 버린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의 양 측면을 비변증법적, 회화적으로 결합한 후기자본주의 문화현상으로 파악⁴²⁾될 수 있으며, 정치적, 문화적 신보수주의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체제 순응적 예술의 일종⁴³⁾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 아방가르드의 행보는 전례가 없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향해가고, 소미와 대중문화, 페미니즘, 컴퓨터 정보사회에서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반응으로써, 하이테크 디자인에서부터 쓰레기 재활용, 범람하는 키치적 사물과 이미지, 기술을 해석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수공예적 전통을 끌어당기

38)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 "협합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한 협합패션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2001), p. 757.

39) 박명희, *Op. cit.*, p. 61.

40) 삼성디자인넷, "20C Fashion 1980~1989년 designers Jean-Paul Gaultier," [HISTORY] [2008년 8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41) Mulva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Penguin Books Ltd., 1988)와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13, 재인용, 박명희, *Op. cit.*, p. 41.

42) 김현돈, *Op. cit.*, pp. 95-98.

43) Andreas Huyssen, *포스트모더니즘*, 정정호, 상내희 편 (서울: 도서출판 터, 1990), p. 297.

는 디자인, 과거를 현재로 가져가는 ‘복고풍’에서 미래로 현재로 끌어들이는 ‘사이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⁴⁴⁾ 그 양상이 다양하여 예측이 불허한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은 예술의 행태를 빠르게 변모시켜 디지털아트와 사이버문화와 같은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출하고, 환경문제와 인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사물의 형태나 기능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본질에 대한 관심과 인간성의 회복으로 이어져 개인의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변모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된 새로운 아방가르드의 창조로 이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상황 속의 아방가르드의 의미는 예술시장이 계속 새로움(Newness)과 새로운 충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제도화된 새로움의 추구인 것이며⁴⁵⁾, 어떠한 예술 양식들도 예술수단으로서 자유로이 이용하여 아방가르드 예술이후 여러 양식들과 형식들의 병존현상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의 탈장르화 현상을 초래⁴⁶⁾하여 아방가르드가 특정 유파나 운동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첨단적인 경향의 총칭⁴⁷⁾이 된다.

2)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dis, de 현상(탈구성, 탈중심, 무질서)과 분해 분석적 표현⁴⁸⁾이라는 미적 원리의 해체를 통해 가뭇을 한듯한 미완성적 이미지나 비완결적인 그리고 구성을 파괴하는 오프 쿼터의 기술주의를 부정⁴⁹⁾하는 의상이 전개된다. 이는 실루엣을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복잡한 테일러링 기술에 기인하는 것으로, 표면상 부분적, 조각적, 파편적으로 보이지만 실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파괴할 뿐이며, 다시 재구성됨으로써⁵⁰⁾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며 새로운 미학으로 이끈다. 또한, 인체의 과장은 인위적으로 특정

부위 혹은 전체적으로 확대 왜곡시켜 인체미·복식미의 해체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소재 변형의 마디에르적 실험성은 구멍 내기, 구기기, 찢기, 풀기 등 다양한 기법으로 복식 소재의 무한한 창조 가능성을 시사하고⁵¹⁾ 그 한계성을 해체시킨다.

패션에 있어서 끊임없는 아방가르드로 등장하는 성(性)적 요소는 이전의 남성적 요소나 여성적 요소의 모방에서 완전히 탈피한 형태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서로 상반된 스타일의 완전한 합체의 시도를 통한 성 융합의 패션과, 신체 노출에 의한 시대 착오성과 변용과 전위로 인한 의외성 그리고 은밀함을 이용한 장식성과 비합리성의 묘한 절충적 결합을 시도⁵²⁾한 시스루 룩(Sec-through Look)이나 퇴폐적 스타일로 등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서 기인한 역사주의와 다문화주의는 포스트 아방가르드에서 모방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패스티쉬(pastiche)로 나타난다. 심리적 소외로부터 기인하는 역사적·문화적 요소는 현대복식에 믹스 앤 매치(mix & match)되어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적·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수정된다. 이러한 동시적 재현은 멀티-에스닉 패션과 레트로 룩 혹은 패션 리바이벌이라는 패션으로 등장하며, 역사적·문화적 요소의 병치로 말미암아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패러독스 효과를 나타냈다.

과거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간극을 파괴하는 아방가르드의 주요 요소로 사용된 키치적 패치워크와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활용은 과거에서와 같이 복합재료의 대중 문화적 요소를 통해 유희적 이미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패션(recycling fashion), 아트웨어, 과잉 장식 표현과 고급 패션의 장식성, 이

44)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 솔 출판사, 2000), p. 119.

45) 엄소희, 김문숙,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996년도 한중 학술교류 세미나* (서울, 1996년 8월), p. 15.

46) 노정심, *Op. cit.*, pp. 28-29.

47) 송경선, “알렉산더 맥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7.

48) 김진환, “현대 패션에 나타난 Deconstruction 표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32-41.

49) 이봉낙, *Op. cit.*, p. 22.

50) 김진환, *Op. cit.*, p. 40.

51) 엄소희, 김문숙,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2000), p. 330.

52) *Ibid.*, p. 329.

선의 단순한 미래주의 복식이 아닌 노출에 의한 에로틱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에로틱한 미래주의 의상까지 포함한 패션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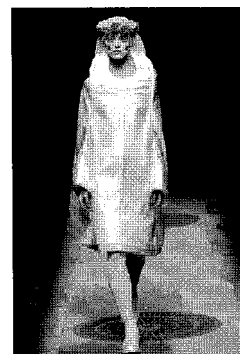
특히 1990년대는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이라는 혁명적 요소는 패션에 있어서 이전의 아방가르드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던 혁명적 아방가르드 패션의 등장을 유도한다. 1990년 초 전선과 전자 회로판이 달린 모조 사이보그 패션을 입은 런던 젊은이들인 사이버 펑크(Cyber-punk)족이 등장⁵³⁾하였으며, 테크노-사이버 패션(Techno-Cyber Fashion)은 하이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칩단소재와 플라스틱, 비닐, 실버 등의 금속성 원단과 같은 나채로운 신소재 그리고 네온 컬러, 실버 컬러, 고풍택이라는 강렬한 시각 효과로 전위적인 미래주의 패션을 열었다⁵⁴⁾. 특히 1990년대 후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빠른 기술적 발전이 목격되면서 의복에 컴퓨터나 다양한 디지털기기 등의 첨단기술을 결합하거나 패션분야에 접목시킨 미래형 디지털 패션(Digital Fashion)이 등장하기 시작⁵⁵⁾하나 본격적인 아방가르드로의 전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관련된 해체적 아방가르드 패션과 이전의 아방가르드 특성이 절충되고 혼성모방되어 완화된 아방가르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미학적 특성인 해체주의·기술주의·역사주의·다원주의·다문화주의를 복합정성·절충주의·혼성모방·부전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현실적 개념의 도입으로, 해체 미학의 성숙인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과 익숙한 새로운 나타난 아방가르드적 인 패션의 분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Ⅲ. NOW 아방가르드 패션과 패러다임적 특성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NOW 아방가르드 패션은 여전히 포스트모더니즘 기조 속에서 표현의 현재

성과 기법을 뛰어넘어 구성의 요소와 의미를 해석하기 힘든 형태로 표현된 삭제의 아방가르드, 통합과 구속의 아방가르드, 중첩의 아방가르드, 연결의 아방가르드, 전위의 아방가르드, 왜곡의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나타난다. 절계를 이용한 삭제의 미는 <그림 1>과 같이 라인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극도의 단순한 아방가르드로의 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모던적 라인의 창출과 노출로 인한 섹시미 그리고 해학적 절계에 의한 해학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삭제는 의복구성요소의 삭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통합과 구속의 아방가르드로 <그림 2>와 같이 주로 소매암홀이나 바지밑위의 구성을 제거하거나 일부분만 남겨두어 활동성에 대한 구속의 미를 표현하거나, 소재나 공간성의 확보에 따른 통합의 미로 단순하면서도 미래적인 혹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라인의 삭제와 미완성으로 나타난 아방가르드는 파괴적인 미와 비대칭적 라인 그리고 두르기라는 스타일 착장법이 주로 사용되어 신체의 노출과 파편적 레이어드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그림 3>과 같은 파편적 레이어드 효과는 중첩의 아방가르드로서, 우연식 혹은 의도적으로 먼저 착용한 복식을 삭제한 부분이나 미완성된 부분을 통해 겹으로 드러내거나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복식과 연결시켜 의도적으로 중첩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절계에 의한 선의 창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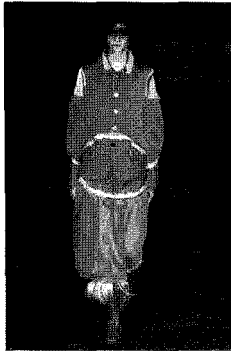


<그림 1> 07S Maison Martin Margiela(www.style.com). <그림 2> 05F Comme des Garçons(www.style.com).

53) 이봉덕, *Op. cit.*, p. 33.

54) 문선애, 김문숙, “20세기 스페이스 에이지 패션과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1999), pp. 175-176.

55) 박태기, “사회변혁기에 발생한 혁명적 패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34-44.



<그림 3> 05S Undercover (www.style.com).



<그림 4> 06F Comme des Garçons(www.style.com).

영동한 것과 영동한 곳으로의 연결의 아방가르드로서, <그림 4>와 같이 전혀 다른 아이템이나 이미지와 접목시키거나 절개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꼬아 연결하여 새로운 실루엣과 미스매치(Mis-Mated) 스타일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또한, 영동한 것과의 연결은 상하 위치 전환에 의한 전위의 아방가르드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림 5>는 워피스 드레스를 티셔츠에 연결하여 스커트의 위치에 옮겨놓음으로써 위치 전환의 아방가르드 패션을 보여준다. 왜곡의 아방가르드는 수직 중선선의 뒤틀림과 전체 혹은 신체 일부분의 확대에 의한 강조 그리고 뉴(New) 실루엣의 창조로 이어진다. 과거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여성적 이미지의 부각을 위해 사용된 신체 확대에 의한 강조는 NOW 아방가르드에 이르러 <그림 6>과 같이 주로 비대칭적 부분의 왜곡과

확대에 의해 여성스러움의 강조가 아닌 아방가르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체 일부분의 확대는 어깨와 허리 그리고 힙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조형예술 미학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어깨와 허리의 확대 강조는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며, 힙의 확대 강조는 고전적인 미의 차용에 의한 완화된 아방가르드의 모습으로 전달된다.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의 페미니즘적 아방가르드와 시·공간의 다원적 아방가르드 그리고 키치적 아방가르드는 NOW 아방가르드 패션에서 역시 완화된 아방가르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주로 다른 아방가르드 요소들과 접목되어 나타나 보조적 요소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이전의 아방가르드로서 역할을 한 요소의 차용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은 창조적 새로움이 아닌 익숙한 새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 연출과 표현에 있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더 접근한 형태로 표출되어지거나 미래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과 같은 디스플레이화된 극적 연출의 시도는 새로운 아방가르드 연출법을 등장시키며, 사이버 문화 발달로 인한 가상게임 인물이 등장한 것과 같은 시각적 충격 효과로 <그림 8>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사이버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버문화의 발달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도 표현되어 새로운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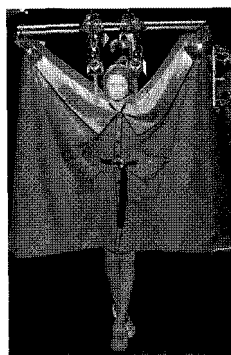
20세기 말에 시작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21세기 들어서면서 하이테크와 감성을 붙여넣은 의류 신소재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의류에 접목되면서 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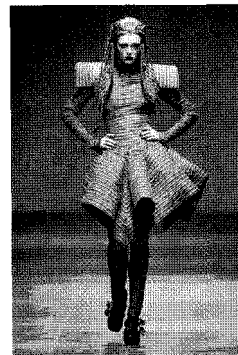
<그림 5> 08S Fashion EAST (www.style.com).



<그림 6> 08S Yohji Yamamoto (www.style.com).



<그림 7> 07F Viktor & Rolf(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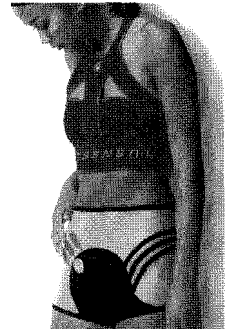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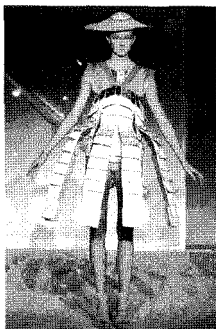
<그림 8> 08F Gareth Pugh (www.style.com).

트 소재, 인텔리гент 소재, 나노 소재 등에 의한 스마트 웨어(Smart Wear)와, 컴퓨터의 초 경량화와 휴대화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개념의 다양한 시도로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가 생겨남으로써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의류시대⁵⁶⁾로의 새로운 NOW 아방가르드 패션이 도래한다. 사실 디지털 의복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1998년에 「Wearable Tokyo[20]」이라는 명칭으로 웨어러블 컴퓨터 심포지엄과 패션쇼가 개최되었으며, 1999년에는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 청바지업체인 리바이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인 쿠레주, 섬유업체인 베킨텍스, 컴퓨터 업체인 바소 네이더 시큐리티, 전자업체인 락시텔 등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웨어러블 컴퓨터 개발에 착수⁵⁷⁾하였다.

하이패션에서는 사넬의 2005년 S/S 컬렉션에서 보여진 TV벨트와 2006년 S/S 컬렉션에 선보인 패션 이스트(Fashion East)의 발광하는 패션을 선보인 것을 필두로, 샬라얀(H. Chalayan)은 07년 S/S 컬렉션 이후 <그림 9>와 같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움직임은 패션으로 스타일이 변용(變容)되는 새로운 아방가르드 패션을 발표하였다. 변용에 의한 NOW 아방가르드

는 디지털을 이용한 스마트 웨어로도 나타나는데, <그림 10>은 타치(Susumu Tachi)의 투명(camouflage) 의류로 착용자가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입고 있는 코트를 투명하게 변장할 수 있게 한다⁵⁸⁾. 또한, 스마트 웨어는 착용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이나 IT 기능을 단순 부착이 아닌 직물내의 한 요소로 통합시킴으로써⁵⁹⁾, 고도의 생활편이성과 착용자의 신체 공간 내에서 쾌적성, 안전성이라는 의복의 기능성을 높이고 디지털에 의한 중독적 유희성을 지향하는 웨어러블 디지털웨어를 탄생시킨다. 웨어러블 디지털에는 MP3나 마이크 등 단순한 기기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웨어러블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1>은 소매에 달린 센서가 착용자에게 위치, 적도, 위도, 거리, 체온과 기온을 알려주며, 일기 예측 정보도 제공해 주는 필립스 디자인의 패딩코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탈 때 혹독한 기후로부터 보호해 주며, <그림 12>는 진도성을 시인 자수와 프린팅으로 내재된 오디오 장치에 연결한 필립스 디자인의 상의와 짧은 바지로 고신축성 직물로 만들어졌고, 맥박, 혈압,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내재되어 있다⁶⁰⁾.

따라서 NOW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는 인간 내면의



<그림 9> 07S Hussein Chalayan(www.style.com).

<그림 10> Susumu Tachi, 투명스마트 웨어(사회변혁기에 발생한 혁명적 패션에 관한 연구, p. 152).

<그림 11> 필립스 크로스 컨트리 스키복(사회변혁기에 발생한 혁명적 패션에 관한 연구, p. 148).

<그림 12> 필립스 디자인 센서장치(사회변혁기에 발생한 혁명적 패션에 관한 연구, p. 94).

56) Ibid., p. 72.

57) 삼성디자인넷. "e-Wear: Wearable Computer with Fashion Trend," [REPORT] (2004년 3월 18일 [2008년 8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58) 확대기, Op. cit., p. 131.

59) 조길수, 조자영, "미래 일상생활용 스마트의류 기술 개발," 섬유기술과 산업 11권 2호 (2007), p. 111.

60) O'Mahony Marie and Sarah E. Braddock, 스포츠 테크, 차임선 역 (서울: 예경, 2004), pp. 80-82.

진보적인 면과 복식 본연의 발전적인 면이 동시에 표출되는 극단적 양측을 형성하는 아방가르드의 모습으로, 즉 해체적 포스트 아방가르드의 형태와 수법을 극대화시킨 반미학적인 형태로, 의외의 해체에 의한 기이한 아방가르드와 첨단과학기술과 패션의 접목을 통한 디지털 하이브리드(Hybrid)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하이브리드 패션은 그 기술과 개발 면에서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나 그 발달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패션과 결합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완전히 접목된 새로운 혁명은 디지털 소비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혁명적 아방가르드 패션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에 따른 NOW 아방가르드 패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포스트 아방가르드의 연장선상에서 고찰될 수 있는 구성 혹은 복식미를 해체하는 아방가르드 패션은 기이한 것의 집요한 추적으로, 발상의 전환과 왜곡된 상식의 회복을 가져와 해체의 다원화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표현방법은 복식 구조와 소재의 변화로 기존의 아름답다는 미의 기본을 추하거나 기이한 형태 혹은 난해함이라는 미의 형이상학적 아방가르드를 위해, 구조의 변형, 균형체계의 파괴, 왜곡에 의한 공간 질서의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 파편적·재구성적·왜곡적 아방가르드라 할 수 있다. 둘째, 성 융합의 아방가르드와 시·공간의 다원적 아방가르드 그리고 키치적 아방가르드가 창조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에서 완화된 아방가르드로 전이된 점이다. 이는 이전의 아방가르드 패션 기법이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 하나의 기술적 기법으로 사용되어, 아방가르드의 새로움이라는 요소가 대중문화 속에 융해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짐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이 인간사회에 미쳤던 부정적인 면이 단순한 개인의 흥미와 유희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고 편리함을 주는 인간공학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 표현방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미학으로의 전이 즉 과학적 미학의 창조를 들 수 있다. 이는 테크노 귀족을 등장시키고 이전의 자연 추구라는 생태학적(ecological) 로하스 개념을 뒤

어 넘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로하스(Digital-LOHAS) 개념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NOW 아방가르드 패션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기저 속에서 특히 해체주의가 발전되고 변형된 양상인 삭제와, 통합과 구축, 중첩, 연결, 진위 그리고 왜곡의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과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IV. 결 론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은 예술의 흐름과 사회적 요소 그리고 그에 따른 아방가르드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른 아방가르드 패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방가르드 패션 역사 고찰을 통해 각 시대별 아방가르드 패션과 개념을 도출하고 2005년 이후의 NOW 아방가르드 패션과 패러다임적 특성 분석을 통해 NOW 아방가르드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은 첫째, 초기 아방가르드 패션은 정치적 입장과 철학을 표출하기 위한 결과물로서 혁신된 반부르조아적인 비합리적인 복식에서 출발하여 둘째, 역사적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는 예술의 영향과 비장식적 순수 복식 그리고 순수조형 복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셋째, 네오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는 비주류집단과 하위문화요소 그리고 예술을 접목하여 스트리트 패션과 사회문화예술을 대중화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넷째, 트랜스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는 전통복식의 회복을 위한 다문화주의와 역사적 절충주의를 표현한 회귀적이면서도 회복의 패션으로 이어졌으며, 다섯째, 포스트 아방가르드 패션에 와서는 해체적 아방가르드 패션과 이전의 아방가르드 특성이 절충되고 혼성 도방된 완화된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이어졌다. 여섯째, 2005년 이후의 NOW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는 극대화되고 발전된 해체적 아방가르드 패션과 디지털 하이브리드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패러다임이 전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NOW 아방가르드 패션의 패러다임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를 일부 수용하나 대중으로부터의 이탈과 창조성을 추구하는 다원적 해체주의, 익숙한 새로움이라는 이전의 아방가르드

요소의 활용에 의한 경제적 논리가 접목된 경제주의, 그리고 인간과 디지털이 하이브리드된 미래적인 테크-휴먼(Tech-Human) 미학으로의 전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아방가르드의 패러다임에 따른 NOW 아방가르드 패션은 사제와, 통합과 구속, 중첩, 의외의 연결, 전위 그리고 왜곡을 표현한 해체적 개념과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하이브리드 개념이 포함된 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패션의 중핵 부분인 NOW 아방가르드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개념을 제공하고, 미래 패션의 방향을 예지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강내희 (1994). *포스트 보타니즘 이야기*. 서울: 월간 미술.

곽태기 (2008). "사회변혁기에 발생한 혁명적 패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옥 (1998).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미 (1987). *현대미술의 동향 : 재현에서 재시로-패니 베이트와 폼바인 회화*. 서울: 비전사.

김민수 (2000).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 슌출판사.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 *복식* 37권.

김민자 (1987).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 (2001). "협합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한 힙합패션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김옥동 (200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개정증보판. 서울: 현암사.

김진환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Deconstruction 표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본 (1993).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재대는문집(인문·사회)* 37권.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신애, 김문숙 (1999). "20세기 스페이스 에이지 패션과 테크노-사이버 패션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박병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성 (2001). "아방가르드 특성을 도위한 현대부용 의상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주라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랜스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삼성디자인넷 (2004년 3월 18일 [2008년 8월 7일 검색]). "e-Wear: Wearable Computer with Fashion Trend" [REPORT];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삼성디자인넷 [2008년 8월 4일 검색]. "20C Fashion 1980 ~ 1989년 designers Jean-Paul Gaultier" [HISTORY];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amsungdesign.net>

송정선 (2004). "알렉산더 맥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소희 (1998). "현대 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소희, 김문숙 (1996년 8월).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996년도 한중 학술교류 세미나*, 서울.

엄소희, 김문숙 (2000).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방가르드의 유형별 특성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염혜정 (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권.

이봉덕 (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정 (1991).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연 (1992). "라파엘로 전과 회화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 장미숙, 양숙희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3호.
- 정삼호 (1996). "1960-1995년의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6권 1호.
- 정원일 (1997). "아방가르드 담론에 관한 연구-포스트모던시대의 네오 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9집.
- 정정식 (2003). "1980년대 포스트모던 회화에 있어 신표현주의 경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1984).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8권 3호.
- 조규화 (1991).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4호.
- 조길수, 조자영 (2007). "미래 일상생활용 스마트의류 기술 개발." *섬유기술과 산업* 11권 2호.
- 하영복 (2000). "현대의상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17권.
- Ackroyd, Peter (1979). *Dressing Up*. New York: Thames and Hudson.
- Hollander, Anne (1980).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Avon Books.
- Huyssen, Andreas (1990). *포스트모더니즘론* 정정호, 강내화 편. 서울: 도서출판 더.
- Mulvagh, Jane (1988).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Penguin Books Ltd.
- O'Mahony, Marie and Braddock, Sarah E. (2004). *스프링 태크*. 차임선 역. 서울: 예경.